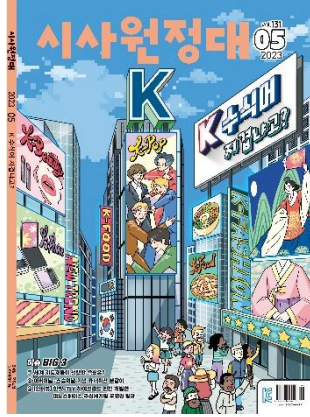


시사원정대 NIE 2023-5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4주 (90분)		
학습 목표	여러 나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고(故) 황기환 지사의 업적을 안다. 국내 문화재 사례를 통해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워맨스'가 떠오르는 배경을 이해한다.		
활동 초점	- 고(故) 황기환 지사를 통해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어떤 원리로 책정되는지 탐구한다. - '워맨스'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59 시사네컷2 - 고(故)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돌아와	- 고(故) 황기환 지사 - 독립운동가	20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드라마 '스틸러'로 본 경제 이야기, 문화재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 문화재 - 경제적 가치	40
	- 112~113 엔터 특특 - 방송가 워맨스 전성시대 여자들의 찐~한 케미!	- 워맨스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우리나라 문화재 중 값지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를 꼽고 그 이유와 함께 소개해 본다.	20

[4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4주		
학습 목표	국내 문화재 사례를 통해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워맨스'가 떠오르는 배경을 이해한다.		
활동 초점	-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어떤 원리로 책정되는지 탐구한다. - '워맨스'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드라마 '스틸러'로 본 경제 이야기, 문화재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 문화재 - 경제적 가치	20
	- 112~113 엔터 특특 - 방송가 워맨스 전성시대 여자들의 찐~한 케미!	- 워맨스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우리나라 문화재 중 값지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를 꼽고 그 이유와 함께 소개해 본다.	5

시사네컷2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돌아와

<어휘 UP>

지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

순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

안장: 장례를 치러 묻음.

고국: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를 이르는 말.

건국: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추서: 세상을 떠난 뒤 훈장을 줌.

호소: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발문>

1. 고 황기환 지사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 보자.
2. 고 황기환 지사 외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업적에 대해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황기환 지사 “한국인들 독립운동 멈추지 않을 것”

“일본의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1919년 8월 25일자 ‘뉴욕헤럴드’ 인터뷰 중)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사진)의 행적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해외 자료들이 3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황

지사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기록을 포함해 현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독립운동 자료 11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1904년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미군 소집자 명단 등을 통해 황 지사의 출생일(1886년 4월 4일)과 하와이 입항 연도(1904년) 기록도 처음 발굴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황 지사의 주 활동무대였던 미국과 프랑스 언론의 논평과 인터뷰 기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황 지사 관련 기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자료에 수록된 문서들이 주를 이뤘다.

황 지사는 뉴욕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재인용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23년 4월 심장병으로 순국한 황 지사에 대해 프랑스 매체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은 부고 기사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도 썼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조국을 사랑한 황 지사의 삶은 물론이고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황 지사 유해를 순국 100년이 되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국립묘지로 봉환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23-04-03]

미디어 속 경제

드라마 '스틸러' 속 경제 이야기, 문화재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어휘 UP>

밀거래: 규범을 어기면서 몰래 사고파는 행위.

도굴: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분을 파거나 광물을 캐냄.

회수: 도로 거두어들임.

상관관계: 두 가지 중 한쪽이 바뀌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바뀌는 관계.

경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기증: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

<발문>

1. 박물관이나 교과서에서 보았던 문화재를 떠올리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분류해 본다.
2. 문화재만큼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물건을 하나 정한 후 경제적 가치를 매겨본다.

<교사 참고자료>

창경궁 숲, 탄소흡수·산소공급·홍수방지...경제가치 얼마?

10헥타르에 달하는 창경궁 숲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2억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지난 7일 '창경궁 숲의 환경가치 발굴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를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박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탄소저장 및 흡수, 홍수방지 등을 중심으로 창경궁 숲을 분석한 결과, 창경궁 숲이 연간 2억4800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한다고 밝혔다.

홍수방지 가치가 연간 779만원, 대기오염물질 제거 가치가 연간 3020만원, 탄소 저장 가치가 연간 1억9800만원, 탄소 흡수 가치가 연간 1300만원이다.

현재 창경궁 숲을 이루는 주요 수종은 철쭉, 산철쭉, 조릿대류 등으로 직경 15.2cm 이하 수종이 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나무가 공급하는 산소량은 연간 151.8t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6억8900만원에 달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헥타르당 총 5.7t,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은 164.3kg에 이르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희대학교, 시민환경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궁능숲의 문화·역사·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궁능숲이 찬바람을 도심으로 전달해 기온을 조절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측과 주기적인 수목의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궁능에 있는 궁궐숲의 공익 기능 평가와 관리방안에 대해 산림청과 공동 협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023-04-10]

엔터 특특

방송가 워맨스 전성시대, 여자들의 찐~한 케미!

<어휘 UP>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동맹: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을 맺음.

단합: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

활약상: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발문>

1. 방송 프로그램 외에 워맨스가 돋보인 영화나 뮤지컬, 연극, 책을 소개해 보자.
2. 자신이 직접 PD가 되어 색다른 워맨스 소재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용을 정리해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신데렐라 스토리' 안 통한다?... 영화·드라마 속 다양해지는 여성 서사

"예쁘네. 탐나."

이달 20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성공한 동화작가 문영(서예지)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강태(김수현)를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정신 병동 보호사로 일하며 자폐증을 앓는 형을 보살피는 강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문영은 그 욕망을 표출하는데 거침이 없다. 외모와 재력을 갖춘 남자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 처한 여주인공에게 구애해 사랑을 쟁취해내는 '신데렐라 스토리'와 정 반대다. 팬 사인회에 나타난 강태의 모자를 벗기며 "모자 쓰지 마. 예쁜 얼굴 안보여"라고 '돌직구'를 던진다.

과거에 부와 외모, 능력까지 모든 걸 갖춘 남성이 등장해 캔디형 여성 주인공을 구원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주류였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욕망과 판타지도 달라지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문화의 이야기 구조는 여성의 시선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2017년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미투' 열풍으로 여성 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이 같은 흐름은 문화계의 꾸준한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영화 제작사는 콘텐츠의 주 타깃인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지난해 영화계에서는 여성 감독의 작품,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벌새' '메기' '82년생 김지영' '윤희에게'는 극장 시장의 비수기에 개봉했음에도 여성의 서사를 섬세하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이 같은 흐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곳곳이 개봉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시작으로 '결백' '초미의 관심사' '프랑스 여자' '야구소녀' 등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여성 서사를 다룬 영화들이 봇물을 이뤘다.

드라마 속 여성서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의 직업적 욕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영한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김블유)는 사회적인 성공이 최대 목표인 여성 '워커홀릭'들의 삶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SBS '하이 에나'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형사, 정치인, 법조인 등의 직업군에서 남성 주인공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여성은 보조적 역할을 했던 기존의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충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정금자(김혜수)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부사 기질을 지녀 상대편 변호를 맡은 윤희재(주지훈)를 꼬셔 정보를 몰래 빼내는 악랄한 모습도 보인다.

이영미 문화평론가는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은 대개 정의롭다. 대장금이 대표적이다. 장금이는 온갖 모략이 판치는 남성사회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무기로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그려지고 있다. 정의로

움, 욕망, 따뜻함 등을 모두 가진 복합적인 여성 캐릭터로 변화하는 건 필연적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단편적인 여성 캐릭터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시청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김은숙 작가의 2년만의 복귀작으로 화제가 된 SBS '더킹: 영원의 군주'는 평균 시청률 8%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시청률 건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은숙 표 '신데렐라 스토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평범한 형사 정태을(김고은) 앞에 백마 '맥시무스'를 타고 나타난 대한 제국 황제 이곤(이민호)이 "자넬 황후로 맞이하겠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표출했다.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범주화를 넘어서는 것이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프로팀 입단을 꿈꾸는 고교 야구의 여성 선수를 연기한 '야구소녀'의 주연 배우 이주영은 "여성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영화만은 아니다. 높은 벽에 도전하는 모두가 뭉클한 감동을 느끼는 작품"이라고 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여성'의 이야기로 전면에 나서는 움직임과 더불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돈'처럼 여성 감독이 여성이 아닌 소재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에도 주목해야 한다. 관객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0-06-29]